

2009년

샘터 & DABIA 여름 연합수련회

수련회 기간  
수련회 장소

2009년 8월 21일(금) ~ 23일(일)  
켄싱턴 충주 리조트

주제

“위의 것을 찾으라”

강사

정용섭 목사



주관/주최

대구성서 아카데미 / 샘터교회

<http://dabia.net>, <http://dabia.net/x/churchs>



목 차

I. 인사말씀

II. 일정안내

III. 알림사항

1. 시설물 이용에 대하여
2. 일정에 대하여
3. 강의 · 예배에 대하여
4. 기타
5. 참가자 명단

IV. 신학단상

생명의 신비 / 세례 / 영적인 사람

창조와 세계 / 칭의와 성화 / 하나님의 은혜성

V. 골로새서 성경공부

제1강. 골로새서의 송영 ( 골 1 : 1 ~ 15 )

제2강. 골로새 철학과의 투쟁 ( 골 2 : 8 ~ 23 )

제3강. 영광으로 나타날 우리의 생명 ( 골 3 : 1 ~ 11 )

제4강. 영적인 삶 ( 골 3 : 12 ~ 17 )

제5강. 말의 주체, 말의 능력 ( 골 4 : 2 ~ 6 )

VI. 주일예배주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또는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 따라서 각양 각색으로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거나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대답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열정은 그 어느 나라의 기독교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근본에서부터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종교적인 취미생활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그런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매너리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독교 신앙의 초심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것입니다. 그 초심은 성서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 신약성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신약성서의 하나인 골로새서를 공부합니다. 골로새서는 2천 년 전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바울과 디모데의 공동서신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알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을 처음으로 들어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대개 여러 번 읽고 들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대 유적지를 똑같이 돌아보면서도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경구가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골로새서 공부를 이끌어가야 할 저는 부담이 큼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셨는데 그런 기대에 제가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겠지요. 주어진 것만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요.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위원으로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개월 전 계획하는 단계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까지 많은 손이 들어갔습니다. 마친 후에도 손이 필요하겠지요. 수련회 순서의 진행을 맡아주신 분들과 재정이나 물품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음으로 양으로 관심을 보여준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번 수련회 모임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구샘터교회, 서울샘터교회, 그리고 대구성서아카데미 온오프 공동체의 연합 모임입니다. 예전 예배와 인문학적 성서읽기, 그리고 사도신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신앙을 공유한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에 드러나거나 숨어 있는 차이점을 클 겁니다. 이번 모임에서 공통점은 더 살리고 차이점은 줄였으면 합니다. 모쪼록 모든 참가자들에게 신앙의 큰 유익이 있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며....

2009년 8월 21일

정용섭 목사



## II. 일정안내

일 자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담당	비고
8 / 21 (금)	20:00 ~ 20:30	참가자 도착 및 숙소 안내	센트럴 세미나실 (지하 1층)	안내: 최선아	어린이 프로그램 (실내:윤광현)
	20:30 ~ 22:30	개회예배		정용섭 목사 (반주: 문혜숙)	
		제1강: 골로새서의 송영		사회: 전남정 강의: 정용섭	
	22:30 ~ 23:0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사회: 최선아	
	23:00 ~	꿈나라로~~~	숙소		
8 / 22 (토)	07:00 ~ 08:00	기상			
	08:00 ~ 09:00	아침 식사/ 자유시간	식당 (1층)		
	09:00 ~ 09:30	찬양 배우기	세미나실	권영민, 이은희 (반주: 윤미영)	어린이 프로그램 (산책:윤광현)
	09:30 ~ 11:00	제2강: 골로새 철학과의 투쟁		사회: 김경선	
	11:00 ~ 12:00	즉문즉답 (원하는 사람만)		강의: 정용섭	
	12:00 ~ 13:30	점심식사 / 자유시간	식당		
	13:30 ~ 14:00	찬양 배우기	세미나실	찬양팀	어린이 프로그램 (수영:윤광현)
	14:00 ~ 15:30	제3강: 영광으로 나타날 우리의 생명		사회: 정재욱 강의: 정용섭	
	15:30 ~ 16:30	즉문즉답 (원하는 사람만)			
	16:30 ~ 18:00	자유시간 (산책,탁구,담소 등)		유인규, 심형규	
	18:00 ~ 19:30	저녁식사 / 자유시간	식당		
	19:30 ~ 20:00	찬양 배우기	세미나실	찬양팀 정원주	어린이 프로그램 (켄싱턴 시네마)
		시 낭송: 정호승의 “서울의 예수” 외 1편			
	20:00 ~ 21:30	제4강: 영적인 삶		사회: 정원주 강의: 정용섭	
	21:30 ~	영화감상 (“떼제 공동체” 영상)	켄싱턴 시네마(1층)		
8 / 23 (일)	07:00 ~ 08:00	기상			
	08:00 ~ 10:00	아침식사 / 자유시간	식당		
	10:00 ~ 12:00	제5강: 말의 주체, 말의 능력 주일공동예배(성찬식)	세미나실	정용섭 목사 (반주: 윤미영)	전원 예배참석
	12:00 ~ 13:00	점심식사	식당		
	13:00 ~	마무리 모임	세미나실	사회: 정재욱	

Ⅲ. 알 릫 사 항

- 1 시설 사용에 대하여
- 2 일정에 대하여
- 3 강의 · 예배에 대하여
- 4 기타
- 5 참가자 명단

#### 1. 시설 사용

- 지하 2층: 수영장(50% 할인, 7시~18시)
- 지하 1층: 센트럴 세미나실, 사우나실(50% 할인, 7시~19시), 편의점(7시~새벽 1시)
- 1층: 북카페(무료, 8시~새벽 1시), 켄싱턴시네마
- 각 방의 열쇠는 1개입니다. 여럿이 사용하는 만큼 각 방마다 열쇠 담당자를 정하셔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 시설 사용 문의처: 1층 로비(043-854-3100)

#### 2. 일정

- 어린이 프로그램 담당자: 윤광현(010-8007-7063)  
-함께 하실 부모님들께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들의 명찰 뒷면에 준비팁과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 8월 23일(일) 점심식사 이후 1시부터 전체 마무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수련회에 대한 소감 및 평가의 시간입니다.

#### 3. 강의 / 예배

- 강의는 고등학생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강의 시작 30분 전에 찬양 배우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강의 시작 10분 전에 세미나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의는(제5강 제외) 사회자가 진행합니다. (p.3 참조)
- 제1강은 개회 예배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 제2강, 제3강 이후의 즉문즉답 시간은 원하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 제4강 이후에는 영화감상("떼제 공동체")이 30분간 진행됩니다.  
영화는 1층 켄싱턴시네마에서 관람할 예정입니다.
- 제5강은 주일공동예배와 함께 진행되며,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 주일공동예배 시, 안내 및 헌금위원은 뒷자리에, 성경 봉독자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 티테이블은 세미나실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이컵도 비치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개인컵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 간식은 뒤쪽에 배치해 둘 예정이오니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급약 등이 필요하시면 최선아(홀로서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도착 및 이탈 시에는 꼭 준비팁(최선아,윤광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전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최선아(홀로서기, 010-8203-696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5. 참가자 명단

### 〈담임목사〉

정용섭, 문혜숙

### 〈다비아〉 - 65명 -

강원혁(현수아빠), 김광숙, 강현수, 강현민/ 고성대(까마귀), 전남정(무위), 고은솔/  
 김민욱/ 김성주(푸른적토마), 김슬/ 김재성(peacemaker)/ 김주일(하늘바람), 박현미/  
 김혜란(웃겨)/ 남지애/ 박창식(muddyfox), 류영희/ 박태호(그날이오면)/  
 백남효(광야), 이성순, 백요한, 백조은/ 심형규(새하늘), 심성우/  
 안균호(꿈동이), 김장호, 김복희, 김정두, 전금연, 육희연, 김미화, 주만돈, 채인숙, 장하진,  
 조재학, 조양숙, 김춘화, 김화자, 민혜미/ 유경종(소풍)/ 이선영/ 이영석, 한점숙, 이서영/  
 이종승(산해), 이주영, 이예은/ 이현우/ 임영웅/ 정상모(peace..), 김을련/  
 정원주(달팽이), 윤미영, 정한결, 정소명, 정수빈/ 정유석(slowneasy), 김미련/  
 조계현(미앤), 최상호/ 천미혜(미들타운)/ 하훈기, 박옥경, 하정직/ 황순태(godfather)

### 〈대구샐터〉 - 40명 -

강대호/ 강태주(꿀강아지), 김연규, 김보훈/ 꺾영미(비단향)/ 구행자(유니스)/  
 권영민(Transzendental), 이은희/ 권영주/ 김경선(maro)/ 김병훈(병훈)/  
 서병우(품속으로), 임은숙(라디오), 서희원/ 신광혜(없는데요), 오임경, 신명/  
 안경모(진리추구), 전은혜(포항댁)/ 오수정(슈옥), 황현도/ 이성민/ 이영규/  
 이재용(pooh), 박성경(펜타스)/ 이태원, 권은희/ 이현자(물들임), 이현영/  
 정수학, 정은하, 정신지, 정구민/ 정지윤/ 조정환(백두산), 유해숙(아침햇살)/ 최병수/  
 황기/ 황철환(동그라미), 하해숙(하늘아래)

### 〈서울샐터〉 - 21명 -

강소은(살람), 음호빈/ 강윤선(겨우살이)/ 김만명(mm)/ 김용성(우디)/ 목옥균(눈꽃), 목영균/  
 박승수/ 박은옥(라라)/ 유인규(산꾼)/ 윤동희(ereima)/ 송옥경(송선생), 김진균/  
 윤혜정, 고은선/ 이유선, 정민석/ 정섭(요나단)/ 정재욱(QED)/ 최선아(홀로서기)/ 최현숙(ruth)



2009년

샘터 & DABIA 여름 연합수련회

#### IV. 신 학 단 상

하나	생명의 신비
둘	세례
셋	영적인 사람
넷	창조와 세계
다섯	칭의와 성화
여섯	하나님의 은혜성

다비아 / 대구샘터교회 / 서울샘터교회

<http://dabia.net>, <http://dabia.net/xe/churchs>

지구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생명체는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다. 조류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새를 모두 알지는 못한다. 곤충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곤충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세균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세균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깊은 바다 속에 서식하는 어류는 또한 얼마나 많은가. 땅 속의 미생물은 또한 얼마나 많은가. 나비의 종류도 많고, 벌의 종류도 많고, 뱀의 종류도 많다.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미처 알 수도 없는 그 많은 생명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말이다. 그저 인간과 나무와 몇몇 짐승, 그리고 몇 가지 물고기만 있어도 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른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 생명체들이 고유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만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몇몇 먹이사슬로 그 관계를 조금 읽을 수는 있다.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산돼지가 뱀을 먹고, 하는 이런 유기적 관계 말이다.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는 채소가 있고, 가장 위에는 사자, 호랑이, 그리고 그 위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으로 먹이사슬이 완전히 해명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세균에게 잡아먹힌다. 우리의 시체를 박테리아가 처리한다는 말이다. 결국 지구의 먹이사슬에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이런 먹이사슬로만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서로 공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그 안에서 작동한다. 그게 생명체의 신비이다. 도저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 중심의 세계만을 최선으로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의 세계는 인간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이다. 작은 물방울이 나뭇잎을 적시기도 하고 땅속뿌리를 통해서 나무의 몸통을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 그 물은 태양, 탄소와 함께 탄소동화작용을 일으킨다. 탄소동화작용은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밑바닥의 화학작용이다. 만약 식물이 탄소동화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생명계는 파괴되고 만다. 그렇다면 결국 지구의 생명은 물이 식물의 몸을 타고 올라가는 그 마이크로의 물리작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세관 작용은 일종의 마술과 같다. 물과 나무가 빚어내는 마술이다. 그 마술에 의해서 지구는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 놀라운 생명 현상을 구약 기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야훼 하나님은 폭풍 우 가운데서 읊에게 말씀하셨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빔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산 염소를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씨레를 끌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쥘 수 있겠느냐?”

읍기서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게 많아질 뿐이지 모르는 게 근본적으로 정복되는 게 아니다. 근원자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무지에서 깨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다. 던져진 존재는 이 세계를 바로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인식론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의 완성으로 보고, 그때에 모든 인식도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 말고 궁극적 생명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신비롭고 불가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과 그의 재림에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이후까지에 이르는 우리의 전체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리공부와 문답을 한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런 정도의 교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가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세례교육은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영세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서너 번 정도의 교육으로 끝이다. 형식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의 세례 교육은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충 세례를 받고 성수주일과 십일조나 잘 드리는 신자가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례는 죽음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3절) 여기서의 죽음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차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세례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져서 그렇지 초기 시대에는 실제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들도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지금 우리도 역시 그렇다. 도덕적인 면에서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모습 그 대로의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초대 교회 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완전하게 살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대답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례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는 세례를 죽을 때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수한 것을 추려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준비가 많았든지, 불충분했든지 그런 것에 상관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례 이후에도 죄를 짓거나 시한착오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이전의 모든 계약과 상관없는 것과 같다. 죄의 근거이기도 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타당하다는 점에서 죽음은 곧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며, 따라서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말은 곧 죽음은 모든 율법적 규범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크하면 자살을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입증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곧 죄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이런 해명은 보다 심층적인 인간과 세례 이해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앞에서 바울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과감하게 주장한 바 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식인종들이 인간의 살을 먹는 행위는 죄가 아닐지도 모른다.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죽은 승려들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 독수리 먹이로 준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도 역시 죄가 아니다. 법은 그 법이 인식되는 범주에서만 타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기독교가 이해하는 생명은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다는 사실이다. 그럴 경우에만 바울의 이 말은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법과 종교적인 율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 땅의 삶에 한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리는 허구이며 순수관념에 떨어진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절대적인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세례 사건을 해명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이 절대세계의 논리를 이것 자체로만 생각하면 자칫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오늘의 현실적 삶을 외면하거나 간과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오늘 여기서의 삶이 가장 명확하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어떤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세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는데도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죽은 것과 똑같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최소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까지 탁성으로 변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 그럴 수도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니까 그런 호흡이 일상화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에 까지 우리의 질문을 넓혀가야 한다.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나 능숙한 기도꾼들, 심지어 남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도 빨(?)이 센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거꾸로 굳이 따로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식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연 영적인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거리는 제법 많으니까 이 질문은 잠깐 뒤로 미루고, 영적인 사람에 대한 논의로 좁혀서 생각을 밀고 나가자.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양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는 그걸 분간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단언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오직 영 자체이신 성령만이 분간할 수 있다. 사람은 매우 영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을 쉽게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다만 우리는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영적인 사람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영적인 것은 영에 의해서 배출되고, 영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두 질문, 즉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와 영이 무엇인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설명이 필요하며, 한쪽을 설명으로 다른 쪽의 설명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문제의 핵심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영에 대해서 직접 무언가를 말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서성이듯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이 곧 신학이며, 신학적 인식이라는 사실을 전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그 어떤 궁극적인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는 없다. 다만 그쪽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영이 무엇인지 직접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르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가능하다면 합당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근본이다. 어떤 점에서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근본에 대해서 질문하는 태도이며 결단인지 모른다. 다시 우리의 길을 찾아서, 영이란 무엇이며, 영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신학은 모든 길을 성서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영에 관한 질문도 성서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성서가 말하는 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에 관해 설명하는 많은 책이 있으니 그걸 참조하면 된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계를 창조할 때 활동했던 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서 기자들은 영에 대해서 풍부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은 내가 여기서 생략하겠다. 이 모든 성서의 보도를 아무리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영을 아직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성서의 영이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궁극적인 세계는 종말의 지평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종말에 가서야 완전히 드러나게 될 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우리는 잠정적으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건 아니다. 성서와 기독교 2천년 역사와 인류가 발전시켜온 많은 진리론적 정보들이 있다. 가능한대로 그런 공부를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도 필요할 것이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그런 공부에 철저하고, 오늘의 역사에서 활동하는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각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대답이 아직 시원치는 못한 것 같다. 영적인 사람이란, 인류 과거 역사에 한정되지 않고 종말의 역사에까지 열려있는 그런 생명의 영을 향해서 영적인 축수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었으며, 신약의 사도들과 성서기자들이었고,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신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미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쨌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 형식을 능란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창조의 영, 정의와 평화의 영, 삼위일체의 영은 결코 그런 종교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교적 형식이 무의미하다는 걸까? 아니다. 종교 형식은 이 영의 활동을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이다. 이 말은 곧 영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의 하나는 곧 예배, 기도, 찬송, 성만찬 같은 종교 형식, 상징이라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가 바르게 역할만 한다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영을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두를 붙들었던 동양의 선승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신앙적, 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구약성서의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곧 그들도 역시 자신들 앞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의 힘과 그 신비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밤하늘의 총총한 별, 태풍, 지진, 화산폭발, 가뭄 등등, 그들의 인식론적 한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 세계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이런 세상의 비밀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설화만이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에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유대교의 창조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사도신경의 첫 항목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간혹 죽음 이후나 최후심판 이후의 세계를 무조건 이 세상과 상관없이 초월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세계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이원론적으로 구분되는 세계는 아니다. 차안과 피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결국 이 창조의 세계를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악하게 보는 것은 결코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 이해가 기독교 신앙에서 두 가지 오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초월적 열광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실존주의이다. 초월적 열광주의는 말 그대로 세상을 초월하는 이데아의 세계만을 지향하며, 극단적 실존주의는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의 실존에만 집착함으로써 결국 이 양자는 이 세상, 이 세상의 물(物), 이 세상의 역사를 간과하거나 해체해버린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규범에 묶이는 청교도적인 윤리관과 영적인 부흥운동 유의 신앙에, 더구나 축자영감설을 수호하는 근본주의적 신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역사에 관한 태도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삼는 기독교 신앙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신학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몸과 자연의 일치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신 이 세상을 인간이 몸으로 즐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향한 찬양(doxology)이다. 요르크 칭크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관해 모든 감각과 모든 능력으로 지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설명한다. “저는 숲 가장자리로 걸어갑니다. 저는 나무들 사이의 빈 곳으로 가서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생명이 약동하는 이른 아침일 때도 있고 만물이 고요해지는 저녁일 때도 있습니다. 들판과 초원, 길과 꽃 그리고 집들이 제 앞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저 홀로.”(Jorg Zink,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32).

또 하나의 다른 신학적 관점은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파괴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의 파괴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실천을 모색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단지 영혼구원에만 몰두하는 소종파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을 보편사적 지평에서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왜곡된 역사와 자연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창조 문제를 핵심 메시지로 수용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몰트만은 창조론의 문제가 오늘날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질문이 전면에 나타났다. 요즘처럼 산업화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 창조자에 관한 믿음은, 그리고 세상을 창조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소위 <생태위기>는 인간 환경의 위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의 위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 위기는 총체적이고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지구라는 혹성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목시록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위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모든 예측이며, 지구에서 벌어지는 창조가 죽음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예측이다.”(J.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Vorwort 11).

이런 점에서 볼 때 창조의 세상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변적인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작업이다. 그동안 이 창조문제는 심미적인 차원이나 더 심하게는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한 도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가능한대로 이 세계를 물리학과 철학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생태계의 위기를 몰고 온 이유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서의 창조 이해와 신학적 개념을 충분히 따라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 창조론의 지평을 심화한다는 것은 곧 종말 이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성화를 강조하는 설교와 그런 목회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곧 기독교 신앙이 원초적인 믿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변화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성화가 신학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신자들의 삶을 건강하게 끌어가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서로 맞물려 있는 몇몇 신학적 혼선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첫째, 요즘 성화를 강조하는 이들의 생각에는 칭의(稱義)와 성화(聖化)가 이원론적으로 구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늘 입버릇처럼 칭의로만은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칭의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성화의 과정이 곧 칼빈이 말하는 '신자의 견인'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이런 주장이 일견 매우 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근본 가르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걸음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부실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성서는 성화를 칭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칭의와 성화가 서로 다른 신학적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 사건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 즉 구원의 실체에 관한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성화 역시 칭의에 포함된 사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목회자들이 칭의를 성화와 대칭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가 인간의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칭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반발해서 '오직 믿음'(sola fide)을 주장했다는 기초적인 사실만 알고 있어도 기독교인다운 윤리에 해당되는 성화를 칭의와 대칭되는 것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성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칭의가 성화를 통해서 보충되어야만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신생아가 자라는 과정을 예로 든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인간이긴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들의 말은 일리가 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도 성숙한 기독교인과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기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별로 이렇다 할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걸 보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칭의의 엄밀성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인간은 아무리 성화되어도, 즉 순교자 정도의 신앙적 순수성과 프란체스코처럼 실제의 삶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칭의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없다면 아무도 자기의 행위(윤리)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칭의와 성화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여긴다. 칭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칭의가 성화이며, 성화가 곧 칭의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실존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루터의 주장은 정당하다.

셋째, 성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성화를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교회 생활에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본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매우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연민을 느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삶의 변화는 아예 입에 담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역시 자비와 평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삶의 변화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에 불과한 이러한 사실을 칭의와 성화라는 구조를 통해서 매우 대단한 가르침인양 떠든다는 게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인간 삶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반 교육에서도 학생들을 책망하거나 잔소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가나, 더 근본적으로 삶과 역사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를 모색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정직해라’, ‘착하게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하고 외친다는 건 기독교의 복음을 율법과 윤리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다.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에 철저히 의존해서 행동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왜 오늘의 설교자들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닌 성화로 신자들을 뒤흔들하는지 모르겠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공연히 고상한 것처럼 성화 운운하지 말고 최소한 ‘칭의’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서와 신학공부나 다시 철저히 하는 게 어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꽃이나 새, 또는 안개처럼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 아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이런 답답증을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과 평화의 마음에 휩싸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또는 종말이 온 다음에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한가? 그 답이 곧 하나님의 은폐성(Deus absconditus)이다.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은폐되어 있는 분이다. 성경을 구구절절이 꿰거나, 또는 지금까지의 모든 물리학, 철학에 관한 학문에 능통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서도 역시 하나님을 완전하게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증언되며, 이 거룩한 분을 직접 본 자는 죽는다고 까지 했다. 즉 못 볼 것을 본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사건이다.

사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듯 명백한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생명도 역시 그 궁극적 사실은 은폐되어 있다. 여기 민들레꽃이 있다고 하자. 그 꽃은 햇빛과 물과 탄소를 결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생산한다. 우리의 모든 먹을거리가 그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기초 단위는 햇빛이라는 말일까? 아니면 탄소, 또는 물인가? 그 모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생명공학자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설명은 현상에 대한 추상적 접근에 불과하지 근본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못된다. 오늘의 첨단 과학이 생명의 기원에 상당히 접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현상에 대한 아무리 많은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대인들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똑같이 무식한 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생명을 말하려면 그것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해명해야만 한다. 하이데거가 질문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각 범주 안에서만 통용되는 주장에 불과하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오히려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존재(Sein)이다. 이 존재는 존재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우리의 감각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절대적인 것은 은폐되어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명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노출되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은폐의 방식으로 노출되는 힘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물질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를 기초로 한 어떤 물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대 물리학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과 에너지의 결합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는 입자가 아니라 너무나 작아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핵과 그것보다 더 미세한 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의 핵은 원자를 대형 교회당으로 확대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찬송가 악보의 작은 보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간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핵마저도 역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 즉 물질 자체가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 존재, 물질의 은폐와 연관된 하나님의 은폐는 그렇게 어둠으로만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계시마저도 역시 완전한 노출이 아니라 은폐의 방식을 취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에서 자기를 은폐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신학이며 설교다. 바로 이 예수 사건에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토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 종말이 이미(schon) 선취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noch nicht) 상태라고 믿는다. 계시와 은폐의 변증법으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해석하고 구원론적 지평을 제시하는 중이다.





2009년

샘터 & DABIA 여름 연합수련회

## V. 골로새서 성경공부

제 1 강

골로새서의 송영 ( 골 1 : 1 ~ 15 )

제 2 강

골로새 철학과의 투쟁 ( 골 2 : 8 ~ 23 )

제 3 강

영광으로 나타날 우리의 생명 ( 골 3 : 1 ~ 11 )

제 4 강

영적인 삶 ( 골 3 : 12 ~ 17 )

제 5 강

말의 주체, 말의 능력 ( 골 4 : 2 ~ 6 )

다비아 / 대구샘터교회 / 서울샘터교회

<http://dabia.net>, <http://dabia.net/xs/churchs>

## -1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 이요  
 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 다  
 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9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신약성서는 4권의 복음서, 1권의 사도행전, 21권의 서신, 1권의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개인 편지라기보다는 디모데와 공동으로 쓴 편지라고 보는 게 옳다. 젊은 디모데가 주로 썼고, 늙은 바울은 마지막에 “친필로”(골 4:18) 그 내용을 확인했다. 골로새서가 바울의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근거는 이 안에 바울의 사상과 구별되는 내용과 구별되는 글쓰기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바울의 신학의 특징인 칭의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중 부에 있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했다.

## 1:2 은혜

일반적으로 “은혜”, 혹은 “은총”(카리스)은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은사”(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특별하게 베풀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구원과 영생은 은혜이지만 예술적 기능과 지적인 능력은 은사다.

은혜의 왜곡 현상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 편주의의이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를 너무나 쉽게 은혜에 기대어 벗어버리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본회퍼가 말하는 대로 ‘값싼 은혜’이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은총 무용론이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업신여긴다.

## 1:2 평강

평강, 또는 평화(에이레네, 샬롬)라는 단어는 성서 안에서만 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추구한 가장 완전한 삶의 상태를 가리킨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일구어낸 사회라 하더라도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말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회복되는 길은 죄가 해결되는 데에 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 1:4 믿음과 사랑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에바브라가 대신 전달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쏟은 것 같다. 더욱이 바울은 옥에 갇힌 자로서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2:5, 4:3). 그 이외에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우들과 서로 연락을 취하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라오디아교회에도 보내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우들도 받아서 읽으라고 지시한다(4:15,16).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인가?

## 1:5 소망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을 독립적인 세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5절에서 그는 하늘에 쌓아 둔 소(희)망에 대해서 말한다. 믿음과 사랑의 뿌리는 소망이라는 말씀이다. 결국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 1:3).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이 세 구절이 약간씩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 사랑, 희망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 1:5 하늘

바울은 희망이 ‘하늘’에 쌓아 둔 것이라고 했다. 성서 시대의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생명이 숨겨진 곳이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생명 형식과 전혀 다른, 우리의 인식으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세계라고 말이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다. 조금 유치한가? 유치한 게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다.

## 1:6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율법적인 복음 공동체? 모든 업적의(義), 또는 자기의(義)로부터의 해방이다.

**-1 장 -**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8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으나 현실적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성령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방식이기 때문이다.

**1:9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믿음생활에서도 중요하다.

**1:10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 심화다. 이것은 강화와는 다르다. 어떻게 자라는가? 여기에 자기 개방성, 자기 초월성이 필요하다.

**1:14 속량 곧 죄사함**

죄란 무엇인가? 모르 수이, 휘브리스, 자기집중, 자기연민, 자기단절, 자폐를 가리킨다. 성서기자들은 왜 죄를 생각하나? 그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악을 묵도하기 때문이다. 죄 사함이 필요한 이유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 사함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다. 어떻게 죄 사함이 가능한가?

**1:15 하나님의 형상**

바울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형상은 헬라어 ‘에이콘’의 번역이다. 그 뜻은 likeness, image, form, appearance, statue 등이다. 루터는 Ebenbild로 번역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불가시적 존재이다.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불가시적 현실성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더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가? 더 근본적으로 현재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이데거- 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무는 도대체 없는가? 성서- 하나님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바로 그 존재이다.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출 3:14)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의 근거는 무엇인가? 만물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포함된다.

**1:18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메타포(은유)이다.  
그걸 직접 그려낼 수는 없다.

엡 1:21-23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와 몸의 메타포는 두 가지 의미이다.

1) 몸과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른다.

오늘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2) 몸과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전 12:12 이하)

분열의 극치를 향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유기적 일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1:19 모든 충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베레 호모’(참된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가능하려면 일단 설득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가 역사 내재적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역사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어떻게 역사 내재와 초월이 일치할 수 있는가?

**1:20 십자가의 피**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자라고 했을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20a절은 다음과 같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는 곧 진정한 평화다.

**1:20 화평을 이루사**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궁금증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세상은 폭력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가 일어났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평화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살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 2 장 -**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1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우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3:14-22절을 참조할 것.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였다.

**2:2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바울은 1:26, 27절에서도 이 ‘비밀’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비밀에 관해서는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 여기서는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자. 유대인들이 아니라 골로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자체가 비밀이다. 그것이 비밀인 이유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어났다는 데에 있다.

**2:3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 무엇이 지혜이며 지식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2:4 교묘한 말**

우리는 대개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속을 때가 많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속지 말라고 말한다. 어떻게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 무엇이 생명의 현실(reality of life)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골로새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8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philosophy)은 필로소와 소피아의 합성어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가리킨다. 신학(theology)은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이다. 하나님의 언어, 또는 하나님의 이성이라는 뜻이다. 철학은 그 시대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대마다 지혜는 달랐기 때문에 어느 한 철학이 모든 시대를 다 지배할 수는 없다. 사실 자연과학도 역시 시대마다 달라진다.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원적으로 ‘세상의 원소’를 가리킨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의 철학이다. 그들은 세상이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물, 불, 공기, 바람이 그것이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이 틀린 건 아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두 원소로 해체된다. 그리고 순환한다. 원래 헬라 철학은 세계를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환한다고 믿었다. 이에 반해 구약성서는 세상을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고 모든 것들이 유일회적이라고 믿었다. 구약의 세계관에 뿌리를 둔 기독교 역시 이 세계가 순환이 아니라 종말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부활의 생명은 지난 삶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골로새 철학에 대한 설명을 Eduard Schweizer에게서 들어보자.(국제성서주석 40, 골로사이서, 144 이하) 필로에 따르면 인간 영혼은 승천할 때 네 개의 지상적 요소 각각에 그가 가진 것을 돌려준다고 한다. 인간이 숙명적인 '원소들의 순환'에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를 넘어서려면 엄격한 금욕이 필요하다. 플루타르크는 골로새서 집필 시기의 직후에 원소들의 투쟁으로 규정되는 달 아래의 세계를 묘사했다. 영혼은 죽은 후 이 세계를 벗어나 먼저 달까지 승천한다. 그 영혼이 완전하게 순수하지 않으면 다시 원소로 떨어진다. 완전히 순화된 영혼들은 결국 에테르에까지, 지복으로 올라간다. 이들에게 구원은 육신의 쾌락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초기 이단인 마르키온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모든 경향은 기원전 1세기의 '피타고라스학파'의 문헌으로 말미암는다. 우주는 4 원소로 생성되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신적이며 초월적인 원소는 에테르이다. 지상적인 원소의 세계는 제한적이다. 에테르와 완전히 대립해 있다. 인간은 신들에게, 영웅에게 경배를 드리고 정화의 목욕을 하며 성 관계가 없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골로새 2:16-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피타고라스학파의 문헌에 나온다. 물론 골로새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 이런 피타고라스 철학과 골로새의 가르침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이 세상에 대한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는 세상을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다. 금욕을 삶의 원리로 삼지도 않는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골로새 철학은 무조건 위의 것에만 몰두했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율법 철학과의 대화, 논쟁 등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신학단상 '창조와 세계' 참조)

**-2장 -**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요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요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자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2:9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골로새 철학이 추구하는 신성이 충만하다.

**2:12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일치를 가리킨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을 건다는 신앙 고백적 징표이다. 그 세례는 성만찬에서 반복된다.(\*신학단상 '세례' 참조)

**2:14 법조문으로 쓴 증서****2:15 통치자들과 권세들**



2:16-19 먹고 마시는 것, 천사 숭배

2:20-23 규례, 사람의 명령

2:23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철학이 주장하는 금욕과 이원론적 세계관은 몸을 괴롭게 할 뿐이지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금욕적인 삶은 이미 유대교에서 율법의 준수로 실행된 것들이다. 물론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런 금욕적인 삶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몸과 세상을 악하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다

## -3장-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에 만연한 헬라 철학의 무익함을 설파한 골로새 저자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제시한다. 헬라철학은 금욕적이고 자학적인 지혜에 속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생명을 가리킨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3:3) 지금은 감추어졌지만 주님의 재림 시에 드러날 것이다. ‘영광’ 중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키워드는 생명, 은혜, 재림, 영광이다.

## 3:1 위의 것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거기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위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확실한 것인지 그 위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성취하는 데만 모든 힘을 소진한다.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성서가 말하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증거다. 부활과 생명과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성서가 말하는 천상, 위의 세계는 무엇일까?

## 3:1 하나님 우편

바울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1b) 하나님 ‘우편’은 어디인가? 고대인들에게 오른편은 그 주체와 동일한 능력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존재 방식을 취하였다는 뜻이다.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사건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주의 한 지점에 정좌하고 계신 분이 아니다.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어느 별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늘이며, 위의 것이다.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위의 것이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곧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라는 뜻이다.

### 3:2 위의 것, 땅의 것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3a)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신앙고백은 우리의 전체 실존에 해당되는 것이지 한 부분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둘째, 바울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이유이다.(1절) 이것은 부활을 가리킨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삼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 3:3 하나님 안에 갇추어졌음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숨어 있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은폐되어 있다. 사람들은 현재 드러난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신비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봐도 이것은 확실하다.

나뭇가지에서 순이 나오기도 하고, 꽃이 나오기도 한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나뭇가지를 잘라보라. 그 안에서 새순과 꽃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순과 꽃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온 것인가? 그것은 순과 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무 안에 숨어 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나뭇가지 안에 숨어 있는 순이나 꽃처럼 하나님 안에 숨어 있다.(\*신학단상 '하나님의 은폐성' 참조)

## - 3 장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 3:4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난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서 어느 순간에 화사한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꽃으로 피어난다. 지금 우리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부활 생명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의 실체가 되신 분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부활의 실체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천상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바울이 지금 이 세상의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신앙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책임질 일에서 도망가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역사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 책임은 마지막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새 사람〉

3:5 탐심은 우상 숭배

3:9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3:11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 -3장-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8**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본문은 이제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한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삶의 능력을 곧장 행동주의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오히려 무위이무불위(無爲以無不爲)가 더 큰 능력이다. (\*신학단상 '영적인 사람' 참조) 믿음과 삶의 일치가 곧 영성이다.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삶의 세계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데에 있다. 믿음의 세계는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며, 삶의 현실은 믿음의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믿음은 삶의 존재론적 근거이고, 삶은 믿음의 인식론적 토대이다.

## 3:12 하나님이 택하시

성서는 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까? 이 선택사상이 교회 안과 밖에서 오해를 받는다. 교회 안에서는 선택사상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로 받아들여서 구원 이기주의로 몰고 간다. 그것의 극단적인 경우가 이중예정, 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패러다임이다. 교회 밖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의 증거로 삼는다. 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진노의 신, 징벌의 신으로 묘사한다. 심지어 이런 신 표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심리 현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모두 잘못이다. 하나님의 선택 사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행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리킨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우리의 인식론적 범주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성서는 간혹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한다. 질그릇은 토기장이에게 불평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宿命주의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의 시각으로 억울하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아름답다. 심지어 악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섭리를 파괴하지 못한다.

### 3:12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한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으며,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 1) 이런 삶의 태도는 쉽지 않다.
- 2)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이런 삶의 노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는 곧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신학단상 '칭의와 성화' 참조)

### 3:14 온전하게 매는 띠-사랑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말인가?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론이다. 판넬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고전 13장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신적 계시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사랑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치 음악의 존재론적 힘에 사로잡힌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듯이 사랑의 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롬 13:8-10 절 참조.

### 3:15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 투 크리스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면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 전 존재를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에 취하듯이 말이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가장 낮은 자리와 가장 높은 자리의 변증법적 긴장관계 아래 놓여 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이며, 부활은 가장 높은 자리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것들로 요동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도 역시 그렇다. 그게 참된 안식이다. 이런 안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 '감사'는 16절과 17절에서 반복된다.

- 3 장 -

-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  
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  
고
-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 3:17 주 예수의 이름

영적인 삶의 결론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독교인의 모든 행위는 ‘주 예수의 이름’ 아래에 놓인다. 둘째,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모두 주 예수의 이름 아래 놓인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오해가 가능하다. 아멘,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의 깊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기독교인의 윤리가 필요하다. 바울의 편지에 이런 윤리적 요청이 따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골 3:18-25절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부부,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것이다.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윤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그것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감사한 삶에 대해서는 더 긴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 ‘그를 힘입어’라고 한다. 주 예수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오해할 때도 있다. 자기 합리화가 그것이다. 이솝 우화에서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여우가 “저 포도는 시어서 먹지 못할 거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감사는 실제적으로 감사할만한 이유를 알고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 4 장 -**

**1**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 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본문 골 4:2-6절이 골로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와 복음 선포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핵심은 '말'이다. 기도도 말로 하고, 복음 선포도 말로 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말로 관계를 맺는다. 이는 단 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실존을 가리킨다.

**4:2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판넬베르크는 기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시 143:1-12)

첫째,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어떤 토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시편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대답을 전혀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르게 대답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둡다. 대답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분명한 대답이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신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서 기다린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성령을 받았다.

#### 4:3 전도할 문

기도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 중보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이 기도 하다. 전도할 문이 열린다는 것을 전문적인 선교활동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의 주체는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말의 능력이고, 주체이다. 그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말의 능력에 사로잡히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 - 4 장 -

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4:3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1:26, 27절과 2:2절에 나온다. (\*신학 단상 '하나님의 은폐성' 참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서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한다. 어떤 유대교 신학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했다. 예수 이후에서 이 세상에는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불치병으로 죽는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이 가능한가? 우리의 대답은 예수의 메시아성은 비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도 해당된다. 젊은 유대인의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인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말이다. 그것은 비밀이다.

비밀은 불확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숨어 있으나 확실한 현실성을 말한다. 이 세상도 그렇다. 다층적이다. 두껍다. 묘하다. 여기 연필 한 자루가 있다. 이것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 아득할 뿐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다. 아무런 상관 없이 자란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된다.

근대의 현실 개념을 해체한 하이데거는 물의 본래적 의미를 통해서 이 세계의 존재 지평을 해명한다. 그에 의하면 물은 밝혀줌의 지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물들의 세계는 존재의 한 차원이다. 하나의 물은 하나의 사건이다. 바로 이 사건이 존재이다. 단순한 물(物) 속에서 존재가 본재하고 물의 사건으로서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관여한다. “물이란 잔과 걸상, 오솔길과 쟁기 등이다. 그러나 물은 또한 그것의 방식에 따라 나무와 연못이고 냇물과 산이다. 물들은 그때마다 체재하면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 물화하면서 왜가리와 노루, 말과 황소이다. 물들은 그때마다 체재하면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 물화하면서 거울과 혁대 쇠, 책과 그림, 왕관과 십자가이다.” 그는 사물(Ding)을 사중자(Gevierte)가 회집하는 장소라고 했다. 사중자는 하늘, 땅, 신성들, 사멸할 자들을 가리킨다. 물의 영성화라 할 수 있다.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나름의 시간이 있다. 물질은 자기 시간을 채우면 다른 물질이 된다. 금은 금의 시간이 채워지면 해체되어 납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한다. 납도 납의 시간을 채우면 해체되어 금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한다. 코엘료가 말하는 핵심은 이 물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일정한 형태를 띤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서로 소통된다. “산티아고, 사막의 모래 한 알이 우주다!”

에버하르트 뢰델의 명저 <Gott als Geheimnis der Welt>는 하나님을 세상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이상한 말이 아니다.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 창조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도 역시 우리에게는 비밀이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에 요정들이 등장한다. 그는 왜 요정의 조화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는 걸까? 그의 작품에는 유령도 흔히 등장한다. 사람들의 삶을 그런 방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4:5 세월을 아끼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하고, 그 관계를 맺을 때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곧 복음 선포의 기회이기도 하다.

#### 4:6 마땅히 대답할 것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다. 4-6절이 모두 그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언어와 그 해명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소금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말의 힘에 이끌림을 받게 된다. 이런 경험은 있는가?



## 개 회 예 전

\*표시는 일어서서

### \* 예배를 여는 교육

목사

회중

### \* 오늘의 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

.....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따르게 하셨으니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으로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을 위해 드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거룩함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죽은 자로부터 삼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심이 분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 개회예전

\*표시는 일어서서

\* 찬송

(사랑과 평화를 위한 노래) ..... 다같이

정세현

정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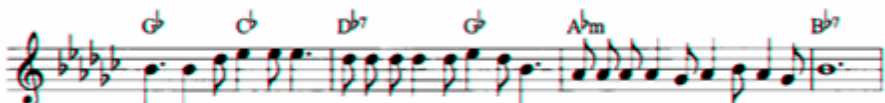
자진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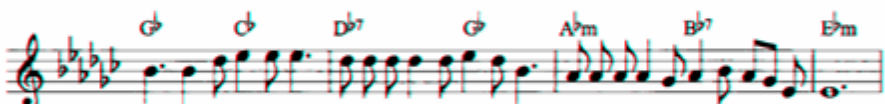
하 나 님 뜻 대로 이 세 상 창조 하 시고 우리 의 평 화 약 속 하 신 주  
하 나 님 당 신 의 정 의 와 사 랑 평 화 는 우리 의 가 습 일 령 입 니 다



자 유 와 평 화 와 사 랑 의 꿈 을 위 해 서 우리 는 모 두 기 도 합 - 니 다  
내 려 단 비 야 사 랑 의 꿈 을 위 해 서 우리 의 가 습 더 저 못 - 도 록



이 세 상 모 두 가 사 랑 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 두 행 복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정 의 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 두 행 복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사 랑 과 평 화 뿐 이 면 우리 는 기 뻔 노 래 하 -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믿 음 과 소 망 이 라 면 우리 는 기 뻔 노 래 하 - 겠 네



이 려 단 비 야 사 랑 의 꿈 을 위 해 서 우리 는 모 두 기 도 합 - 니 다



이 세 상 모 두 가 사 랑 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 두 행 복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정 의 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 두 행 복 하 겠 네



# 개회예전

\*표시는 일어서서

## \* 사죄기도

다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 죄를 범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행동 없음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주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하나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고난 받는 이웃을 최선으로 돕지도 못하고  
정의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나이다.  
무늬만 생명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참된 생명의 소리에 귀를 막을 때가 많았나이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해주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의 세례를 베푸시어,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 \* 참회의 묵상기도

다같이

## \* 용서의 선포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여러분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 \* 평화의 인사

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회중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앉으십시오.)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다같이

## 말씀예전

설교 전 기도

다같이

오,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읽는 자와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광휘에 휩싸여,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원하나이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구약

사무엘하 17:5-14

박성경 교수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포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임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밋이 먼저 엿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11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13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이어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성서교독

44. 시편 100

목사와 회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 말씀예전

**서신서**      **골로새서 4:2-6** ..... **김주일 교수**

- |   |  |
|---|--|
| <p><b>2</b>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p> <p><b>3</b>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 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p> | <p><b>4</b>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p> <p><b>5</b>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p> <p><b>6</b>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p> |
|---|--|

**복음서**      **마가복음 6:30-44** ..... **목옥균 교수**

- |   |   |
|---|---|
| <p><b>30</b>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말이 고하니</p> <p><b>31</b>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p> <p><b>32</b>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p> <p><b>33</b>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p> <p><b>34</b>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p> <p><b>35</b>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p> <p><b>36</b>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p> | <p><b>37</b>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p> <p><b>38</b>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p> <p><b>39</b>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p> <p><b>40</b>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p> <p><b>41</b>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p> <p><b>42</b> 다 배불리 먹고</p> <p><b>43</b>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p> <p><b>44</b>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p> |
|---|---|

**설교**      **말의 주체, 말의 능력** ..... **정용섭 목사**

**설교 후 기도** ..... **정용섭 목사**

**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다 같이**

# 성찬예전

\*표시는 일어서서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다같이

우리는 한분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는 아버지시며, 전능자시며,  
하늘과 땅, 그리고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나이다.  
오직 한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 전에 성부께 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고,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 사람이 되시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나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거룩하며 우주적이고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으며,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헌금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 강소는 교우

중보기도 ..... 정용섭 목사

주기도 ..... 다같이

성찬초대 ..... 정용섭 목사

성찬기도 ..... 정용섭 목사

성찬분배 ..... 정용섭 목사

알림 ..... 정용섭 목사

# 파송예전

\*표시는 일어서서

\* 송영 영광누리소서 (3) ..... 다같이

만 왕 의 왕 우리 - 구 - 주 태 초 부 터 - 영 - 원 - 까 지

영 광 영 광 누리 소 서 영 광 영 광 누리 소 서

\* 위탁의 말씀 ..... 정용섭 목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평화와 용기를 잃지 말며, 선한 것을 붙들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회 얻는 대로 돌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 축복기도 ..... 정용섭 목사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